+ 부록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2016년 3분기

표제항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교
건곤감리	-	건곤감리(乾坤坎離)[니] 명사, 건괘와 곤괘와 감괘와 이괘리는 뜻 으로, 태극기에 쓰인 네 괘를 통틀 어 이르는 말. ¶태극기의 {건곤감 리} 가운데 '건'은 땅을 의미한다.	표제어 추가
굴러오다	-	굴러-오대굴: —] [-와, -오니] 「동사」 「1」【…으로】【…을】어떤 곳을 굴러서 오다. ¶발 아래로 빈 병이 {굴러오다!/내 앞으로 낙엽이 {굴러왔다!, 이이의 발밑으로 축구공이 데굴데굴 {굴러왔다!. Ⅱ 바위가 언덕을 {굴러왔다!. Ⅱ 바위가 언덕을 {굴러왔다!. Ⅱ 나위가 반위를 구르며 옮겨 오다. ¶ 그의 눈앞으로 지프 한 대가 {굴러와〉 멈췄다/낮선 자전거 한대가 내 앞으로 비틀비틀 {굴러와〉 서다/마침 택시가 한 대 {굴러왔으므로} 그녀는 재빨리 손을 쳐들었다. ≪이동하, 도시의 늪≫ [3](비유적으로) 집단이나 단체가계속되거나 운영되어 오다.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이나마 회사가 {굴러온} 것은 순전히 여러분 덕분입니다.	표제어 추가
신내림	-	신-내림(神一) 「명사」 「1,무당이나 박수의 운명을 타고 난 사람에게 신이 붙는 일. ¶(신 내림이) 오다. 「2,무당이나 박수에게 신이 붙어서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일. ¶ {신내림} 과정/(신내림) 상태/(신 내림을) 받다/(신내림) 받기를 거	표제어 추가

		부하다/비손을 하여 내림대가 흔들리고 당방울이 흔들리면 {신내 림이} 이루어진 것이다.	
연월 ⁰¹	-	연월 ⁰¹ (年月) 「명사」특정 연도와 월 을 아울러 이르는 말. ¶구입 (연월/ 제조 (연월)/설립 (연월/(연월) 불명/ 태어난 (연월을) 기록하다.	표제어 추가
셰데르 블롬	셰데르블롬	쇠데르블롬	표제어 수정
옵션거래	옵션-거래	옵션^거래	표제어 수정
외톨이	외-톨이	외톨-이	표제어 수정
내일모레	[II] * 부사」=모레[II].	[II]「부사」 「1,=모레[II]、 ¶집으로 옮겨 가야 하는 이유를 다음다음으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내일모레}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기까지했다. ≪이병주, 행복어 사전≫ 「2,가까운 시일 안에. ¶'그래요, 엄마.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이 {내일모레} 끝날 것도 아니까요." ≪최일남, 그때 말이 있었네≫	뜻풀이 추가
낼모레	[II]「부사, '내일모레[II]'의 준말.¶다 늙어서 {낼모레} 황천객이 될 이 나를 끌어 다 놓고 닦달질을 해야 하겠나! ≪ 박경리, 토지≫	[II]「부사, 「1, '내일모레[II] 「1, '의 준말. ¶ '선 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백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낼모레} 삼례 집회만 하더라도 말이 동학 교조 신원이지 신원을앞세우고 벌써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송기숙, 녹두 장군》 「2, '내일모레[II] 「2, '의 준말. ¶ 다늙어서 {낼모레} 황천객이 될 이나를 끌어다 놓고 닦달질을 해야 하겠나! 《박경리, 토지》	뜻풀이 추가
동생 ⁰¹	-	「3」남남끼리의 사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 그들은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	뜻풀이 추가

		사이이다./인사해. 이쪽은 우리 옆집 사는 {동생이야},/어이 {동 생}! 이리 와서 같이 한잔하세.	
멀리 ⁰¹	「부사」한 시점이나 지점에서 시간이나 거리가 몹시 떨어져 있는 상태로, 늦외우 ^이 「2」, ¶앞일을 (멀리) 내다보다/그는 {멀리} 도망갔다./우리 가족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시골로 이사를 했다./개동은 되도록이면 집에서 {멀리} 가 버리고 싶었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앞이툭 트이고 (멀리) 강이 보였다. ≪박완서, 오만과 몽상≫「반」가까이[I]「1」.	[] 「부사」한 시점이나 지점에서 시간이나 거리가 몹시 떨어져 있는 상태로. = 외우 ⁰¹ [2]. ¶앞 일을 {멀리} 내다보다/그는 {멀리} 도망갔다/우리 가족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시골로 이사를했다/개동은 되도록 집에서 {멀리} 가 버리고 싶었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앞이 툭 트이고 {멀리} 강이 보였다. 《박완서, 오만과 몽상》 [II] 『명사」먼 곳. ¶저 {멀리서} 그 사람이 보였다/창문 밖 {멀리로] 개구리 소리가 요란하다/그는 뒷걸음질 치며 저 {멀리를} 더듬어 보았다. 《장용화, 현대의 야》	뜻풀이 추가
플랫폼	_	「4」『컴퓨터』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구동 가능한 하드웨어 구조 또는 소프트웨어 프레임 워크의 하나. 구조,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따위를 포함한다. 「5」『컴퓨터』 정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개방하여 누구나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기반서비스.	뜻풀이 추가
엔들	조사 ((주로 장소나 때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양보와 반어의 뜻을 겸하여 나타내는 보조사. ¶나 같은 나그네가 어느 (곳엔들) 못 가라./어찌 (꿈엔들) 잊을 수 있겠소./{예전엔들} 그런 일이 없었겠나?	-	표제어 삭제
가늘다	「1」긴 물체의 굵기나 너비가 보통 에 미치지 못하고 얇거나 좁다.	「1」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뜻풀이 수정

공교육	공적인 재원(財源)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교육, 국가 기관이나 지방 공공 단체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 립 학교 교육과 공립 학교 교육이 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권 내 교육, 국립 학교 교육, 공립 학교 교육, 사립 학교 교육이 있다.	뜻풀이 수정
굵다	「1」긴 물체의 둘레나 너비가 길거 나 넓다.	「1」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를 넘어 길다.	뜻풀이 수정
발매기	돈을 넣으면 <u>자동으로 상품을 내어</u> <u>파는</u> 기계.	지정된 돈을 넣으면 <u>승차권, 입장권,</u> 관람권 따위를 자동으로 발행하는 기계.	뜻풀이 수정
복선 [©]	「2」『문학』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u>사건에 대하여</u> <u>미리</u> 독자에게 <u>넌지시</u> 암시하는 서술.	r2」『문학』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u>사건을</u> 미리 독 자에게 암시하는 <u>것</u> .	뜻풀이 수정
사교육	사립 학교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도권 밖에서 하는 교육.	뜻풀이 수정
싣다 ⁰¹	「1」물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 배, 수레, <u>비행기</u> , 짐승의 등 따위에 올리다.	「1」물체나 사람을 옮기기 위하여 <u>탈것</u> 수레, 짐승의 등 따위에 올 리다.	뜻풀이 수정
연배	일정한 정도에 도달한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연갑 ⁰¹ (年甲)· 연갑살·연갑세·연갑자.	어떤 범위에 속하는 나이, 또는 그런 사람, 주로 성인에 대하여 이른다. ≒연갑 ⁰¹ (年甲)·연갑살·연갑세·연갑자.	뜻풀이 수정
<u>0</u> 07	음으로 양으로 「관용구」남이 <u>모르는</u> 가운데.	음으로 양으로 「관용구」남이 <u>알게</u> 모르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용구 뜻풀이 수정
힘내다	꾸준히 힘을 써서 어떤 일을 해내다.	어떤 일이 잘 마무리되거나 어떤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마음과 힘을 다하다. 명령문이나 청유 문에 쓰일 경우, 용기와 의욕이 솟 아나도록 북돋워 주는 의미가 있다.	뜻풀이 수정
김밥	[김 : -] [김밥맨김 : 밤-]]	[김ː-/김ː빱] [김밥만[김ː밤-/ 김ː빰-]]	발음 수정
기뻐하다	【…을】기쁘게 여기다. ¶선물을 받은 아이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는 수석 졸업을 아주 {기뻐했다]./ 그렇게 귀띔해 주어도 {기뻐하기는	[I] 마음에 기쁨을 느끼다. ¶선물을 받은 아이가 뛸 듯이 {기뻐했다}/그렇게 귀띔해 주어도 {기뻐하기는커녕} 남의 말처럼	문형 정보 수정

	커녕} 남의 말처럼 심드렁히 대답 했다. ≪이문열, 영웅시대≫	심드렁히 대답했다. ≪이문열, 영웅시대≫/여태 우울하기만 하던 최제우가 이렇게 {기뻐하 는} 모습을 제자들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송기숙, 녹 두 장군≫ [II] 【···에】【···을】(('···에'나 '··· 을' 대신에 '···에 대하여'가 쓰	
		이기도 한다)) 어떤 일, 사실 따위를 기쁘게 여기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승진 소식에 매우 {기 뻐하셨다. ॥ 그는 수석 졸업을 아주 {기뻐했다}./우길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였다}. 《한설야, 탑》 비그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이번 '행운에 대하여 마음으로 {기뻐해} 주고 또 축복하여 주어야만 마땅할 것이다. 《박태원, 천변 풍경》	
슬퍼하다	【…을】슬프게 여기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했다],/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뒤에는 오랫동안 상복을 입고 쇠약해질 정도로 {슬퍼하는} 것을 금하며 ≪최명희, 혼불≫	[1] 마음에 슬픔을 느끼다.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 아/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뒤 에는 오랫동안 상복을 입고 쇠 약해질 정도로 (슬퍼하는) 것을 금하며… 《최명희, 혼불》 [11] 【…에】【…을】(('…에'나 '…을' 대신에 '…에 대하여'가 쓰이기도 한다)) 어떤 일, 사실 따위를 슬프게 여기다. ¶그는 성실하고 공순하며 소소한 소사(//事)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물이었다. 《현진건, 빈처》 비신라의 중 의상을 사모한 당나라의 선묘가 이별을 {슬퍼하여} 떠나는 배를 바라보다 바다에 몸을 던졌고… 《박경리, 토지》/그때부터 나는 봄을 {슬퍼하기} 시작한 것 같다. 《전혜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친구의 불행한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	문형 정보 수정

어나던 해에 나라가 망해 버린 것을 항상 분하게 여기고 가슴 {아파하였다}. 《최명희, 혼불》/조선을	느끼다. ¶신생아가 갑자기 {아파 하거나} 토하면 즉시 병원에 데 리고 가 봐야 한다. ‖ 어머니가 몹	문형 정보 수정
<u>다.</u> /{경숙과} 민희는 여고 동창	<u>다.</u> ((경숙과) 민희는 여고 동창	용례 수정
「2」¶벼 이삭, 수수 이삭이 <u>오슬오슬</u> {속삭인다}./~	「2」¶벼 이삭, 수수 이삭이 <u>와삭와삭</u> {속삭인다}./~	용례 수정
광처럼 은은했고, {우비를} 입고 허 벅지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었어	처럼 은은했고, (우비를) 입고 허벅 지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었어도	용례 수정 (추가)
	어나던 해에 나라가 망해 버린 것을 항상 분하게 여기고 기슴 {아파하였다}. 《최명희, 혼불》/조선을 위하여서 가슴이 {아팠소}. 그렇지만 이제 나 따위가 가슴을 아파한 대야 무슨 소용이 있소. 《이광수, 유정》 [III] ¶{대륙과} 해양은 기후가 다른 다./{경숙과} 민희는 여고 동창이다./{레몬과} 귤은 비타민 시(C)가 많다. 「2,¶벼 이삭, 수수 이삭이 오슬오슬 {속삭인다}./~ ¶랜턴 주변에 은회색 물보라가 극 광처럼 은은했고, {우비를} 입고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었어도 옷이 촉촉하게 젖어 들어오기	을 항상 분하게 여기고 가슴 {아파 하였다}. 《최명희, 혼불≫/조선을 위하여서 가슴이 {아팠소}. 그렇지 만 이제 나 따위가 가슴을 아파한 대야 무슨 소용이 있소. 《이광수, 유정》 지하여 가능이 (아팠소). 그렇지 만 이제 나 따위가 가슴을 아파한 대야 무슨 소용이 있소. 《이광수, 유정》 [III] 『(나는 그녀가 그렇게 마음 {아파한다} 어떤 릴, 사실 때처럼 가슴을 {아파했다}. 『그는 시 대를 {아파하며} 작품을 쓰는 작가로 유명하다/나는 그의 불행을 진심으로 {아파했다}. 『그는 시 대를 {아파하며} 작품을 쓰는 작가로 유명하다/나는 그의 불행을 진심으로 {아파했다}. 『할아버지는 지난 세월에 대하여 {아파하며} 술잔을 드셨다. [III] 『(대륙과) 해양은 기후가 다른 다./(경숙과) 민희는 여고 동창이다./(레몬과) 귤은 비타민 시 (C)가 많다. [2.] [배 이삭, 수수 이삭이 오슬오슬 {속삭인다}./~ 『간.] [배 이삭, 수수 이삭이 오슬오슬 {속삭인다}./~ 『간.] [배 이착, 수수 이삭이 오슬오슬 {속삭인다}./~ 『간.] [배 이착, 수수 이삭이 오슬오슬 {속삭인다}./~ 『간.] [배 이착, 수수 이삭이 오슬오슬 {속숙이다.} 우비를 입고 해벅지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었어도 옷이 촉촉하게 젖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정효, 하얀 전쟁》/조금 내려오니까 {우비} 씌운 인력거 한채가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 《염